

■ 주일미사 참례 의무 관련 해제

-2020년에 교구장 나우만 대주교님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몸이 허약하여 감염될 우려가 있거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외부 활동을 못하는 분들에게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관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6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부터 팬데믹으로 시작된 주일미사 참례 의무 관면을 해제하며 앞으로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불필요한 일과 쇼핑을 삼가고 가족/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와 여가/휴식을 통해 시간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관면됩니다.

■ 성모성월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올해는 성모성월을 맞아 구역/반장님들 통해 공지한 기도 달력에 따라 묵주기도를 바치고자 합니다. 매일 성모님과 함께, 기도 달력에 나와 있는 우리 공동체의 가정을 위해 또는 특별한 지향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시면 됩니다. 특별히 성모성월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묵주기도를 바쳐 주십시오. 따라서 본당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성모의 밤은 따로 없겠습니다.  
-주일에는 구역별로 성모상 앞 전기초 켜고, 미사 전 묵주기도 때 구역지향 추가해서 묵주기도 바칩니다.

■ 부활시기

-부활시기에는 부활 삼종기도를 바칩니다.  
-주일 미사 전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입당/파견 성가를 마스크 착용한채 부릅니다.  
-미사 중 신자 응답 부분은 마스크 착용한 채 합니다. (영성체 때 "아멘"도 해당됨)  
-평화의 인사는 접촉을 제외하고 인사 나눕니다.  
-새신자 첫 고해성사가 5월 2일 부활 제5주일 미사 전에 있습니다.

■ ACTS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절약한 몫은 Archbishop's Call To Share를 통해 가난한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구장 주교님께 일임하실 수 있습니다. ACTS로 하실 경우 Parish 선택란에는 Korean Catholic Community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주일헌금을 통해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고해성사

-주일미사에 빠지면 고해성사를 보시고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방송미사 시청은 주일미사 참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해성사는 주일미사 전/후에 드립니다.  
-성찰(십계명기준), 통회, 정개(결심)를 하고 고해성사를 보시면 됩니다.  
-미사 시간 임박하여 고해성사를 못받으시면 일단 영성체 하시고 미사 후 즉시 고해성사 보시기 바랍니다. 고해성사를 안보실 경우 영성체 하시면 안됩니다.  
-고해성사는 성당 입구에서 본당신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감사

-본당 홈페이지 로그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박동희 안나 자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스크 도네이션해 주신 이상우 아벨 형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세금보고용 공제 서류

-2020년 세금보고를 위한 교무금/헌금 납입총액 증명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재무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본당신자등록

-구역(반)장님 통해 본당신자등록 양식과 우표가 붙은 봉투를 각 가정에 배포합니다.  
-작성하신 후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매년 본당신자등록을 하겠습니다.

■ 장학금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장학금 수여는 5월 2일 오늘 주일미사 공지사항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졸업생 (차서는 세라피나)과 그 가정에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성당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 및 입구에서 손소독을 하고 체온계로 손목 체온을 측정한 후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깜빡 잊고 오신 분은 입구에 비치된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무료)  
-열이 나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또는 의사의 권유가 있으면 집에 머무르시며 건강 회복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당 재정에 본당신부는 관여하지 않으니 재정은 평협회장께 문의 바랍니다.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신자들은 백신 접종을 할 것을 미국주교회의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오시면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주시고, 유아가 있는 가정도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제대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제대 가까이 오시어 미사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파 건
금 주	129	245
차 주	131	238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녜스
차 주	김명은 안젤라	김동술 요한세례자	윤지선 리디아

주보 담당: 박민 바실리오 richard.min.park@gmail.com